

■ <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도 <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심의
- 회의일시 : 1차 서류심의) 2022년 6월 29일(수)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2022년 7월 7일(목)~7월 8일(금)
3차 최종심의회의) 2022년 7월 13(수)
- 회의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및 줌 화상회의

해당사업의 지원취지

<작가 조사-연구-비평> 사업은 현재 한국 미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조명 혹은 재조명이 필요한 작가와 작품 세계에 대한 비평 내러티브 구축 및 작가 소개 자료 생산·활용 지원을 위한 시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작가에 대한 심도 있는 기초 조사에 근거해 동시대 미술연구와 비평 활동의 토대 구축 및 심층적인 연구와 긴 호흡의 글쓰기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작가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출범하였다.

또한 조사, 연구, 비평의 선순환에 의한 체계적인 결과물이 작가의 차기 창작과 전시, 학계의 심화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한국 미술계의 거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 하겠다.

심의기준/가중치 및 심의방법

시범 사업인 만큼 새로운 심의 모델의 개발을 위해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고자 하였고, 심의 전 신청서 전수검토를 시작으로 1차 서류심의, 2차 심층적인 인터뷰 심의, 그리고 3차 최종심의 회의에 이르는 엄정한 절차를 통해 총 29건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신청단체는 총 92개 였으나, 서류결격 5건을 제외한 총 87개 단체가 심의 대상에 올랐다.

서류 심의는 공모 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서 작가와 주요 참여자 구성의 수월성 50%, 사업의 우수성과 지원의 파급효과 30%, 기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 20%를 고려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총 40개 단체가 1차 심의를 통과했다. 1차 서류 심의에 앞서 심의 위원들은 87개 단체의 지원서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점검하는 사전 검토 및 온라인 가채점을 실시했는데, 사전 온라인 가채점 결과 상위권에 진입한 지원 단체의 경우 1차 심의회의에서도 대체로 심의 위원 간 큰 이견이 없었다. 전체 심의 대상 중 심의 위원 간 점수의 편차가 큰 사업은 집중적인 토론을 거치며 중요한 고려사항의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주로 지원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작가와 주요 참여자 및 외부 필진의 역량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결과물의 생성과 홍보 방안, 그리고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점검 하였다.

2차 심의는 1차 심의를 통과한 40개 팀을 대상으로 이틀간 중 화상으로 발표(PT) 및 인터뷰를 실시했다. 서류 심의를 통해 올라온 40팀은 애초의 순위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다시 평가를 해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5인의 심의위원은 서류를 재차 검토하고 함께 면접에 참여하여 다양한 질문을 통해 신청 내용을 좀 더 심도깊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향성, 역량 있는 연구진 및 필진의 확보 및 참여 확정 여부, 아카이브의 대상이나 범주의 명확성, 정확한 예산 근거 등 신청서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내용들을 인터뷰를 통해 세부적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작가 조사와 연구, 비평 사업의 이상적 모델을 구성해가며 그에 접근하는 연구팀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에 걸친 면담이었으므로 시차에 따른 평가의 차가 생기지 않도록 설정한 심의기준에 대하여 매일 심의 전에 위원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상기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 고려사항

심의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류 심의에서는 작가 지원 사업인 만큼 연구대상 작가가 한국 현대미술에서 조명 또는 재조명이 반드시 필요한 작가인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프로모션 함으로써 해외에 소개되고 성장할 수 있는 작가, 조명 또는 재조명함으로써 한국미술사의 소외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량 있는 작가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연구자의 경우 활동 이력을 고려할 때 해당 작가와 협력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역량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역량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계 및 미술계에서의 활동 등을 기반으로 인터뷰 답변을 반영하여 정동적 역량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인 작가의 역량은 충분하지만, 주요 참여자의 연구 이력이 짧고 연구 논점이 불명확하거나 아이디어 스케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작가가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대상일지라도 안타깝지만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셋째, 국내의 역량 있는 미술이론가와 비평가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해당 사업에 지원한 여러 단체가 동일한 연구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동일인이 여러 사업에 동시에 포함되는 경우, 혹은 타 기관 유사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획자나 책임연구자의 경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넷째, 신청서의 목차 구성에서 본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제시한 원고의 포함 여부와 선행 연구에 대해 충실한 검토를 했는지도 살폈다. 그리고 긴 호흡의 글로 작품세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하고 비평문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의 완성도와 타당성을 고려해 평가에 반영하였다. 작가를 해석하는 데에는 이론적 틀이나 담론을 따르게 되

는 경향이 있는데, 연구가 지나치게 현재 유행하는 주제에 편중되어 작가의 면모가 축소되는 것은 지양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해외 필진의 경우 필수 사항이 아니라 권장 사항이긴 하지만 해외 필진을 포함한 단체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 작가를 연구하기에 적합한 전문성을 지닌 필진인지, 혹은 신청을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2차 인터뷰 심의에서 질문을 통해 세부적으로 확인하였다.

여섯째, 아키비스트에 의한 작가의 작품 목록화가 가능할지, 아카이브의 대상과 범주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통해 살폈다.

일곱째, 본 사업의 결과물은 PDF 및 e-book 형태로 완성해 무료 배포와 확산을 용이하게 하고, 향후 출판으로 연계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따라서 신청서에 본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제시한 카탈로그, 브로슈어, 리플렛의 배포와 확산 계획이 사업의 목적과 의도에 적합하도록 디자인이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여덟째, 1개년 사업의 경우 70% 이상 완성된 원고의 제출이 필수 사항인데도 대부분 기존 원고 또는 자료이거나 전체적인 사업 구성과 완성도에서 미흡하였다. 2개년 사업의 경우는 연구 계획이 중간 연구 결과를 포함해 최종 결과물의 완성이 가능하도록 기획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아홉째, 총괄기획자의 사업 이해도 및 역량, 업무수행 영역에 대해 확인하고 그에 따른 기획운영 사례비가 적절하게 책정되었는가를 살폈다. 총괄기획자의 인건비에 예산이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연구자 및 아키비스트 인건비와 결과물을 위한 편집비 등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괄기획자, 작가, 책임연구자가 구분되어 신청된 팀도 있었고, 혼용된 팀도 있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역할 분배에 대한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현대미술에서 작가가 기획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긴 호흡의 글을 써서 출판을 하기도 하지만, 총괄기획자-작가-책임연구자 그리고 연구자와 외부 집필자 등 연구가 중점이 되는 사업에서 이들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식을 개발하여야 함을 인지하였다. 또한 미술사적이고 비평적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판별하기 위하여 세밀한 목차와 글의 양이 명시된 부분에 유의하였다. 목차와 연구에 대한 소개를 통해 주제어가 드러나거나 목적이 명확히 명시된 것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무엇보다 결과물에 대한 이해, 그것을 가공하고 유포하는 계획 등에 대해서도 관찰하였다.

예산배분 등 심의결과 요약

단체에 대한 지원예산 결정은 1년 사업과 2년 사업으로 구분되어 예산은 책정의 기준이 다

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 2년제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므로 예산을 검토할 때 인건비와 제작비 등의 적정한 비율에 대해 검토하였다. 작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연구자의 긴 호흡을 토대로 한 연구, 해외에 프로모션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전제로 하였을 때, 각 영역의 비율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총괄기획자의 기획, 운영 사례비 예시는 연 300-500만원이었으므로 이 한도를 넘지 않을 것에 유의하였다. 작가, 아키비스트, 연구자 등의 항목에 맞는 예시된 지원 액수를 지키는 지에 대해서도 관찰하였다. 연구자가 소수에 한정되어 총괄기획자, 책임연구자, 작가의 역할이 겹쳐있을 때 예산 사용에 유의하였으며 번역의 경우 통상적이거나 계약의 조건 등에 대해 유의하였다.

선정된 연구팀의 공통점은 전문적인 연구자의 참여가 돋보이고, 번역에 대한 공신력있는 대상과 협약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디지털 자료가 강세가 됨에 따라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된 결과물의 유포방식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신력 있는 단체나 미술관 배포, 다양한 접근 경로 등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는 진지한 접근을 한 경우들도 해당되었다.

최종절차로 단체 당 최종지원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총괄기획자와 연구자, 집필자의 역할이 중복되어 예산 책정이 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조정하였으며, 기획자와 연구자의 예산이 합리적이며 구체적으로 배분되어 있는지 또한 제작과 디자인, 번역 등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를 반영하여 평가, 조정하였다.

소회 및 당부사항

<작가 조사-연구-비평> 사업은 1차적으로 작가에 대한 ‘기초 조사’, 작가의 작품세계를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미술사적 연구’, 그리고 새로운 관점의 ‘동시대적 비평’이라는 세 영역이 원활하게 맞물리는 결과물의 생성을 통해 작가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처음 실행하는 시범 사업이므로 첫 심의 결과가 앞으로 심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심의 위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심의에 임하고자 했다.

이 사업은 호흡이 긴 연구의 결과로서 글, 그것의 가공이 핵심이다. 좋은 글과 연구를 위해서는 작가에 대한 아카이브가 따라야 하는데, 아카이브가 단순히 작가 약력과 작품목록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 아카이브가 작가를 이해하고 작품을 확인, 해석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계 미술사에 한국의 미술가들이 편입되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 일부 단체의 경우 본 사업에서 요청한 카탈로그 제작을 카탈로그 레조네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과 조사 대상이나 범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 작업에 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행연구를 기본으로 하되, 기존의 것에 머물러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연구를 가능하게 하여 작가의 작품세계를 다각도에서 고찰하고 깊이 있게 다루어 명실공히 프

로모션 되어야 할 것이다. 작가의 질적, 양적 활동상을 나열해 호소하거나, 인상 비평 및 에세이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작가의 예술세계가 한국 미술의 좌표 어디에 놓이는지 공시적, 통시적으로 꼼꼼히 분석하여, 단순 소도록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 날카로운 관점과 전문성으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어떤 시선에서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성취하려는지 논리 정연하게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수준급의 연구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과 참여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청서에 제안한 책임연구자, 연구자, 집필자 등의 구성원 외에도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전문가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실 것과 전문인들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위해서는 연구를 위한 좋은 이미지 정리 및 제공, 작가의 작품을 효과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세련된 편집도 뒤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독창적인 디지털 포맷으로 새로운 형태의 전자출판(e-publishing)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상을 삽입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작가를 소개하거나, 결과물과 전시의 연계, 기존 기관 및 사이트 아카이브와의 연동 등도 기획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신력 있는 번역으로 작가의 작품이 세계에 소개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를 희망한다.

모쪼록 이 사업을 통하여 기존의 도록발간 사업, 디지털목록화 사업 등과 차별화하여, 새롭게 조명되는 작가들이 세계 미술계에 소개되거나 현재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들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명심하고 인력의 재조직, 목차의 재구성, 철저한 동료평가 수렴 같은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

심의위원 전체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작가를 프로모션하고, 이에 긴 호흡의 글쓰기가 가능한 역량을 양성하는 본 사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2022년 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